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과의 관계 :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최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The Relation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Social Welfar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Hee-Chul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회복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개입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 4학년 전공 재학생 118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유의표집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에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내적 대처자원으로서 회복탄력성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과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취업스트레스, 삶의 질, 회복탄력성, 조절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provide help to seeking a preventive intervention plan for lowering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in social welfare student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by examining how resilience work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quality of their life. This study investigated by carrying out purposive sampling final targeting 118 senior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t K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do. The Study results found that employment stress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in social welfare students, and resilience h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employment stress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howed applicability of resilience as an internal coping resource for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ed an active intervention plan for lowering employment stress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Key Words : Social welfare students, Employment stress, Quality of life, Resilience, Moderating effect

1. 서론

최근 무분별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남발과 이로 인한 인력 급증으로 인해 취업경쟁의 심화가 사회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부터 전공 상관없이 사회복지자격 관련 교과목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2005년부터는 전체 자격증에서 2급 자격증 발급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사회복지학과 전공 개설 수는 591개, 관련 전공 개설 수는 324개로 총 915개의 학과 및 전공에서 사회복지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수요와 상관없이 급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사회복지사 노동시

*Corresponding Author : Hee-Chul Choi(pride838@kangnam.ac.kr)

Received October 14,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어[2] 점차적으로 취업경쟁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ee[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업정보와 미래계획이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흥미부족, 나이 및 신체적 어려움이라는 진로장벽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이런 부분이 취업스트레스로 이어짐을 예측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4],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저학년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생 활 적응 뿐 아니라 취업과 국가고시 등 해야 할 과업이 많은 점을 원인으로 본다[5]. 20대 이상 성인 1046명을 대상으로 2018년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20대 남녀의 행복도는 남성 54.05점, 여성 52.30점으로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6]. 20대 행복도가 이렇게 가장 낮은 이유는 '최악의 취업난' 과 관련이 높은데, 취업스트레스에 행복감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2017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청년들이 첫 취업에 이르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12개월로 나타나 2년 전의 조사 때보다 1개월 늘어나 사회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7].

취업스트레스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걱정과 두려움 등을 느끼며 나타나는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8].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취업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도 대학생의 평균 취업률은 전문대학 71.1%, 4년제 대학 64.2%였으나, 사회복지가 속한 사회계열의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전문대학 66.1%, 4년제 대학 62.4%로 나타났다[9].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급증과 한정된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감안해보면 향후 구직기간의 장기화와 함께 취업자 수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다. 취업경쟁이 심화될수록 취업스트레스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절한 예방과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삶의 질은 삶 전체에 대하여 경험하는 만족감의 주관적 평가로서 신체적이며,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며 단순하게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라 할 수 있다[10].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삶의 질을 낮춘다[11-13]는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취업스트레

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취업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대학생들이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요인은 삶의 질 문제 수준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주목하는 개념이 회복탄력성이다. 다양한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로부터의 영향을 조절하여 이를 경감시키거나 적응하도록 돕는 변인들 중의 하나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위험하고 역경을 겪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14].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개인에게 있어 내·외적 위협과 보호과정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역동적 과정으로 생활상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수정하도록 해주는 요인이 된다[15].

최근에는 회복탄력성의 예방적 기능을 주목한 연구들이 많다[16].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Lee[17]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을 예방과 치료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 회복탄력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스트레스와 대처행동[18], 취업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 자아탄력성, 자기효능감과와의 관계[19, 20],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 진로미결정과의 관계[21, 22] 등 주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 변인들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복탄력성을 개인의 내적자원으로 보고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 및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방차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삶의 질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 둘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통제변수 및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셋째,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은 조절효과를 갖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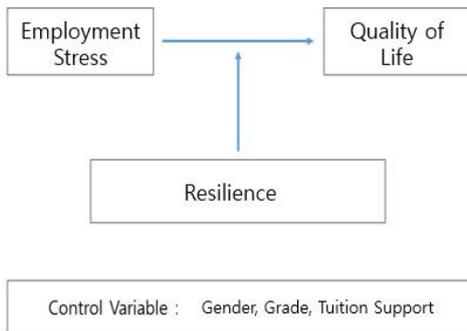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교의 사회복지 전공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조사 소요기간은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동의한 대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설문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협조를 요청하였다. 설문지는 총 130부가 배포되어 이중 총 1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조사도구

2.3.1 삶의 질

본 연구에서는 Min 등[23]이 개발한 WHOQOL-BREF (한국판 간편형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26문항으로 신체건강 (7문항), 심리적 요인(6문항), 사회적 관계 (3문항), 생활환경 (8문항), 전반적 삶의 질 (2문항) 등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90이었다.

2.3.2 취업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한 Cornell Medical Index(스트레스 측정법)를 토대로 Hwang[24]이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Kang[25]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성격스트레스 (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업스트레스 (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스트레스 (3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31이었다.

2.3.3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Shin 등[26]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한국형 회복탄력성 검사지수(KRQ-5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조절능력 (18문항), 대인관계능력 (18문항), 긍정성 (17문항)의 하위요인으로 세 가지의 점수 총합이 회복탄력성 지수가 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69이었다.

2.3.4 통제변수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중 성별, 성적, 학자금 지원여부 등의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로 언급되었다. 성별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Shim[27] 및 Moon[13]의 연구에서, 성적 역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eoun[28]의 연구 그리고 학자금 대출여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Na[29]의 한국장학패널조사 연구에 근거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여로 측정하였고, 성적은 직전학기 학점평균 3.5 미만과 3.5 이상의 두 집단으로, 학자금 지원여부는 지원있음은 1, 지원없음은 0으로 측정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고, 삶의 질과 주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성적, 경제수준, 전공동기, 학과생활만족도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1과 같이 알아보았다.

먼저 전체 118명 중 남학생은 39명(33.1%), 여학생은 79명(66.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보다 많았다. 평균연령은 24.07세였으며, 성적수준은 상 16명(13.5%), 중 88명(74.6%), 하 14명(11.9%)이었다. 학자금 지원 여부에 대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32명(27.1%)으로 나타나 주관적 경제상황을 '하'라고 기입한 24.6%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86명(7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성적' 15명(12.7%), 가족 권유 11명(9.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만족도는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이 80.5%로 나타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19.5%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8)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39	33.1
	female	79	66.9
Age	< 25	87	73.7
	≥ 25	31	26.3
	Mean 24.07세 (S.D 4.52)		
Grade	previous semester < 3.5	58	49.1
	previous semester ≥ 3.5	60	50.9
Tuition support	Student Loan Available	32	27.1
	No student loan	86	72.9
Subjective economic situation	upper	9	7.6
	middle	80	67.8
	bottom	29	24.6
Major motivation	grade	15	12.7
	Aptitude and interest	86	73.0
	Family invitation	11	9.3
	Social preference	1	0.8
	etc	5	4.2
Department life satisfaction	very unsatisfied	4	3.4
	unsatisfied	19	16.1
	satisfied	80	67.8
	very satisfied	15	12.7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취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삶의 질에 대한 각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 5점 만점 중 삶의 질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회복탄력성 3.18점, 취업스트레스 2.3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점수는 Kim[30]의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 집단 427명의 평균 2.18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점수대를 보였다.

또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59로 나타났고, 모두 0.6이하의 상관정도를 보였다. 삶의 질은 취업스트레스($r = -.59^{**}$), 회복탄력성($r = .19^*$)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회복탄력성 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N=118)

variable	1	2	3	4	5	6
1	1					
2	-.28**	1				
3	.17	-.16	1			
4	-.09	-.15	-.14	1		
5	.01	-.14	.13	-.04	1	
6	-.03	-.02	.12	-.46**	.23**	1
Mean				2.39	3.18	3.38
S.D				.54	.18	.44

*p<.05, **p<.01
 1. 성별 2. 성적 3. 학자금 지원 여부 4. 취업스트레스 5. 회복탄력성 6. 삶의 질

3.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분석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과 같이 통제변수와 취업스트레스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모델 1),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모델 2), 취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n the Resilience (N=118)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trol variable	(constant)	4.684		26.439	2.082		4.871	1.391		2.498
	Gender	-.010	-.010	-.129	-.030	-.031	-.462	-.039	-.041	-.612
	Grade	-.132	-.147	-1.841	-.066	-.073	-1.058	-.071	-.079	-1.153
	Economic level	-.016	-.015	-.197	-.046	-.045	-.683	-.030	-.029	-.443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stress	-.513	-.621	-7.067***	-.467	-.576	-7.533***	-.303	-.295	-3.148**
Moderator variable	Resilience				.243	.137	2.253*	.219	.126	2.142*
Interaction variable	Employment stress × Resilience							-.124	-.119	-2.071*
R ²		.376			.548			.584		
Adj. R ²		.354			.528			.566		
R ² Change		.376			.172			.036		
F		16.896***			26.980***			23.621***		

*p<.05, **p<.01, ***p<.001

먼저 모델 1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 통제변수인 성별, 성적, 경제 수준과 독립변수인 취업스트레스를 투입하였다. 연구결과, 모델 1에 투입한 취업스트레스($\beta=-.621$, $p<.001$)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에서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추가로 조절변수를 모델 1에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력은 17.2% 증가하였고(R^2 Change=.172), 모델 전체의 설명력은 54.8%로 대학생의 삶의 질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6.980$, $R^2=.548$). 각각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취업스트레스($\beta=-.576$, $p<.001$)와 회복탄력성($\beta=.137$, $p<.05$)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모델 2에 추가로 취업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회귀모형이 3.6% 증가하였고(R^2 Change=.036), 전체 설명력은 58.4%로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23.621$, $R^2=.584$). 모델 3에서는 취업스트레스($\beta=-.295$, $p<.01$)와 회복탄력성($\beta=.126$, $p<.05$)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취업스트레스×회복탄력성은 삶의 질에 대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119$, $p<.05$).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일정부분 조절 또는 완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이 취업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삶의 질 정도를 일정 부분 조절 혹은 완충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회복탄력성을 내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과 교육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취업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의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K대학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11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취업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차원과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회복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 관계에서 조절이나 완충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는 부정적 사건이나 감정을 경험하더라도 높은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련 영향을 덜 받으며 보다 적응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31]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원(stressor)을 경험하는데, 스트레스 원이 있더라도 본인이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에 적절히 대처한다면 스트레스로 경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Shin[32]의 높은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잘 견디고 적응한다고 밝힌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등 각 하위영역을 개발하고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Son과 Moon[33]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우리나라 성인 평균 195점과 비교할 때 평균 187점으로 낮고,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은 성인 평균 63.5점에 비해 59.9점, 대인관계능력에서도 성인 평균 67.8점에 비해 66.7점, 긍정성은 성인 평균 63.4점인데 비해 60.8점으로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기조절능력은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연결된다. 학교교육과정에서도 실기위주의 수업을 활용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여러 다양하게 직면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습득하도록 하는 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증진하도록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긍정성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써 멘토링 제도나 튜터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교수멘토링 제도는 긍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전공에 대한 진로지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러한 활동 후 피드백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사회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 개발도 필요하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고취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며 개방적인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은 매우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취·창업센터를 마련하여 구직 공지, 자격증 취득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 등 학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제공과 학과별로 취업특강, 면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과에 급급하여 졸업예정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학교 또는 학과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만으로 자료조사를 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졸업예정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4학년 학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는 신입생 때부터 직면하는 중·장기적 스트레스이므로, 전 학년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 J. Lee et al. (2011).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Social Worker Education Curriculum and Qualificat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 [2] S. I. Nam, M. J. Kim, K. H. Choi, E. K. Bae & Y. E. Son. (2018).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and Research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Qualificat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Social Workers Association
- [3] H. J. Lee. (2016). *Factors Affect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4] K. W. Ko, & C. Y. Nam. (2012). A Study on the Perceived Level of Stress of College Students with Part-time Work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49-168.
- [5] J. K. Kim. (2014). A Review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47-59.
DOI : 10.5977/jkasne.2014.20.1.47

- [6]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29/96239079/1>
- [7] J. A. Lee & J. Y. Won. (2017). Young Man's First Job and Potential Economic Activity. Employment Trend Brief. 2,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8] E. H. Park & Y. T. Lee. (2013).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24(4), 5-30.
- [9] Ministry of Education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7). 2017 Employment Statistics Yearbook for Graduat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10] W. J. Baek. 2009.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Quality of Life on Suicide Ideation in the Elderly*. Doctoral's Thesis. Daegu Haany University Graduate School, Gyeongsan.
- [11] M. H. Choi,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un & H. J. Park. (2015).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22-131.
DOI : 105807/kjohn.2015.24.2.122
- [12] Y. M. Baek.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Flo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490-496.
DOI : 10.5762/KAIS.2017.18.5.490
- [13] D. H. Moon. (2019). The Influence on Readiness for Employment and Job-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Quality of Lif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4), 783-797.
DOI : 10.22251/jlcci.2019.19.14.783
- [14] C. A. Olsson, L. Bond, J. M. Burns, D. A. Vella-Brodrick & S. M. Sawyer.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1), 1-11.
DOI : 10.1016/S0140-1971(02)00118-5
- [15] M. Ruter.(199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DOI : 10.1192/bjp.147.6.598
- [16] B. Benard. (1993).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Educational Leadership*, 51(3), 44-48.
- [17] P. H. Kim & Y. R. Lee. (2016).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Social Worker who Experienced Traumatic Ev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545-552.
DOI : 10.14400/JDC.2016.14.9.545
- [18] S. Y. Kim & S. H. (2009). Research on Employment Stress and Countermeasures of the Graduates-to-be Who Majored In Social Work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9, 23-51.
- [19] I. H. Yun. (2016).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308-314.
DOI : 10.5762/KAIS.2016.17.6.308
- [20] M. S. Lee.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GRI REVIEW*, 19(3), 159-182.
- [21] Y. J. Bae. (2016). Influence of Job-seeking Stress on Career Indecision of Social Welfare Major Students in Daegu, Gyeongbuk: The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2(2), 217-242.
DOI : 10.18859/ssrr.2016.05.32.2.217
- [22] S. Y. Choi. (2017). Effects of Intrinsic-Extrinsic Work Value and Job Seeking Stres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Social Work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0), 787-796.
DOI : 10.14257/ajmahs.2017.10.71
- [23] S. G. Min. C. I. Lee. K. I. Kim. S. Y. Suh & D. K. Kim.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WHOQOL-BRE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3), 571-579.
- [24] S. W. Hwang.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5] Y. R. Kang. (2006). *The Influence of Jobs seeking Stress on Their Career Maturity Dance 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6] W. Y. Shin, M. J. Kim & J. H. Kim.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27] B. Y. Park & O. S. Shim. (2016).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1), 811-830.
DOI : 10.22251/jlcci.2016.16.11.811
- [28] M. W. Jeoun. (2014).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9] J. E. Na. (2020). Factors Influencing Undergraduates' Quality of Life: Moder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Latent Growth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8(1), 25-32.
- [30] M. S. Kim. (2018). Research on Job Seeking Stress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Social Welfar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of Psychosocial Resour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42, 85-104.
DOI : 10.31409/KJSWE.2018.42.85
- [31] R. S. Lazarus &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ress.
- [32] G. H. Shin. (2017). A Study on Resilience Type of the Juvenile Delinquents. *Forum For Youth Culture*, 51, 99-127.
DOI: 10.17854/ffyc.2017.07.51.99
- [33] D. S. Son & O. H. Moon. (2011).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Resilience of Social Welfare Majors in Colle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12, 48-69.

최 희 철(Choi Hee Chul)

[정회원]



- 2009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박사)
- 2009년 8월 ~ 2010년 2월 :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 2010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 E-Mail : pride838@kangnam.ac.kr